

Austen을 읽는 재미에 개입하는 역사의 모습

—후기 작품을 지리적 모형에 따라 읽으며—

장 경 육

I

이 글이 다루는 작품은 *Northanger Abbey*(1818)와 *Mansfield Park*(1814), 그리고 *Persuasion*(1818)의 세 편인데, 짧은 지면에 많은 작품을 다룬 것은 이 글의 일차적 목적이 하나의 작품에 대한 분석보다는 ‘지리적 모형’이라는 틀을 가지고 Austen의 작품 세계에 일관된 관심사를 정리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염두에 두는 점은 ‘지리적 모형’이라는 틀로 밝혀 볼 Austen의 역사적 관심, 즉 그의 작품에 드러나는 역사적 형상화의 문제가 그의 문학적 가치를 가늠하는 잣대로 유용한지를 검토하려는 점에 있다. 이런 목적에 비추어 보면 가급적 많은 작품을 일별하고 상호 대조하는 방법이 유용하다고 여긴 때문이다.

사실 *Mansfield Park*와 *Persuasion*의 경우는 집필 시기와 출간 시기가 모두 Austen 후기에 해당되므로 큰 문제가 없지만, *Northanger Abbey*의 경우에는 사후에 출간되었어도 Austen 초기에 집필된 작품이므로 엄밀히 말해서 후기 작품이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Austen의 작품은 초기에 집필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낙 개정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시대구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Northanger Abbey*의 경우도 Susan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써어진 때와 출판업자 Richard Crosby에게

넘진 시기, 회수받고 난 이후부터 출간되기까지 과연 몇 번의 개정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기¹⁾ 때문에 출간 연도에 맞춰 후기 작품이라는 범주로 묶어 보았다. 이렇듯 하나의 개념으로 깔끔하게 묶이기 힘든 작품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 작품을 거론한 데는 다른 이유도 있는데 그것은 부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글이 ‘독자의 감동’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기준에 비추어 비평적 선입견 없이 Austen의 작품을 읽으려는 의도를 갖기 때문이다. 즉 이들 세 작품은 다른 작품들보다 비교적 유명세를 덜 탄 작품들이기 때문에 비평가들의 권위나 선입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것들이다. 물론 *Mansfield Park*의 경우는 Austen 당대에 크게 주목을 끌었던 작품이고 오늘날 극찬과 홀대를 동시에 받으면서 많은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사정이 다른 편이지만, 그런만큼 독자의 감동이라는 상식에서 한번쯤 다시 접근해 볼 필요도 있고 아직 우리에게는 *Emma*나 *Pride and Prejudice*보다는 생소한 느낌을 많이 주는 작품이라고 보아 이 글에서 함께 다루었다.

흔히 Austen이라 하면 폭넓은 사회 활동보다는 집안에 틀어 박혀 글쓰기를 좋아했던 노처녀의 이미지가 떠오르기 마련이다 이런 이미지는 다분히 그의 조카인 J.E. Austen-Leigh의 회고록으로 인해 과장되게 부각된 면이 없지 않지만, 어쨌든 Austen의 소설이 몇몇 가정의 일상적 파티와 결혼사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그의

1) *Northanger Abbey*의 개정 횟수에 대해서는 1803년에 Richard Crosby에게 회수한 이래로는 별 개정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과 그 이후와 이전에도 개정이 있었다고 보는 설명이 갈리듯 시각의 차이가 크게 존재하는데 전자의 설명은 Michael Hardwick, *A Guide to Jane Auste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3) 195면에 있고 후자의 경우는 Q.D. Leavis, *Collected Essays, vol 1: The Englishness of the English Novel* (Cambridge: Cambridge UP, 1983) 63-4면에 나와 있다.

작품 세계가 외부 세계와는 차단된 제한적인 범위에 머무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생긴다. 섭정시대 영국의 남부 지방, 그것도 중상층에 속하는 젠트리 계급의 가정 생활에 한정된 그의 작품에 여느 고전 작품에 비겨도 모자라지 않는 문학적 가치가 과연 어떻게 들어 있다는 것인지, 그것이 들어 있다면 또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설명하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Ian Watt가 “규모와 품격의 대조”²⁾라고 표현한 이 문제는 Austen 비평사에 지속적인 숙제가 되어 왔고 Austen을 논하려는 비평가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거치지 않을 수 없게 된 형편이다. 그러나 이 ‘규모와 품격’의 문제는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과도 관련된 만큼 간단치 않은 것이고 보니 그에 대한 설명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Yasmine Gooneratne처럼 Austen의 핵심적인 면모를 “언어를 능숙하게 다루는 솜씨”³⁾에 있다고 보는 평자가 있는가하면 Marilyn Butler처럼 그러한 심미적 평가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Austen의 소설이 “당대의 활발한 이념의 전쟁터”⁴⁾와 민감하게

2) Ian Watt, *Jane Austen: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63) 2면. 정확한 원문의 맥락은 ‘the enduring problem of Jane Austen critics: scale versus stature; the slightness of the matter and the authority of the manner’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Watt의 표현은 Austen이 취급하는 사건의 사소함과 그것을 다루는 방식의 뛰어남을 대립적으로 구분한 듯하다. 따라서 ‘stature’의 의미는 엄밀한 의미에서 ‘품격’이라기보다는 주제를 다루는 기량의 뛰어난 ‘수준’을 의미하는 쪽이 더 가깝겠다. 그러나 이 글에서 취하는 입장은 Austen이 취급하는 사건 자체도 궁극적으로 사소한 것이 아니며 또 그것이 기량의 뛰어남과 대립함으로 놓을 수는 없다고 보기에. Austen 연구의 지속적인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는 내용과 형식을 포괄하는 개념인 ‘품격’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았다.

3) Yasmine Gooneratne, *Jane Austen* (Cambridge: Cambridge UP, 1970) 3면.

4) Marilyn Butler, *Jane Austen and the War of Ideas* (Oxford: Oxford UP, 1975) 294면.

연결된 점을 강조하는 평자도 있다. 또한 여성론적 입장에서 보아 Austen의 작품이 “합리주의적, 혹은 계몽주의적 여성해방론의 중심 주제”⁵⁾를 다루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Margaret Kirkham 같은 이도 있다. 이런 다양한 입장들은 Austen 연구에서 ‘규모와 품격’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또 그에 대한 다양한 대답의 존재 자체가 문학비평이 보여줄 수 있는 해답의 속성임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Austen에 대한 평가의 다양성이란 그것이 서로의 논점을 보강해 주면서 좀더 결실있는 해석에 근접할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자칫 다른 논점들과 대립되는 과정에서 독자로 하여금 Austen에 접근하는 길을 막아버리도록 만드는 미로가 될 위험도 없지는 않다.

사실 이러한 역기능은 평범한 독자나 초보적인 문학도가 개론적인 지침으로 삼을 만한 책들이 위에 언급한 비평가들의 논의와는 별개로 초기의 소박한 평가를 변용하는 정도로 Austen을 소개하는 데서도 쉽게 알 수 있다.⁶⁾ 이는 개론서를 저술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거나 게으른 탓으로 돌리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Austen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일반 독자의

5) Margaret Kirkham, *Jane Austen, feminism and Fiction* (Sussex: The Harvester Press, 1983) xi면.

6) 이러한 개론서들의 입장을 대표할 만한 것은 Dorothy Van Ghent, *The English Novel* (New York: Harper & Row, 1976) 99면의 “It is wronging an Austen novel to expect of it what it makes no pretense to rival — the spiritual profundity of the very greatest novels. But if we expect artistic mastery of limited materials, we shall not be disappointed.”이다. Austen의 관심사가 좁은 것이되 그가 선택한 범위 안에서는 완벽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그의 논지는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M.H. Abrams, et. al. eds., 6th edition, vol 2 (New York: Norton, 1993) 16면에도 거의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고, 국내의 개론서로는 정병조, 『영문학사 III: 영국소설사』(서울: 을유문화사, 1987) 96면이 그의 소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독서에 적절한 지침이 되지 못하는 어떤 측면을 갖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다. 만약 사정이 후자의 경우라면 우리는 Austen의 ‘규모와 품격’의 문제에 대한 이 다양한 설명들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를 안게 된다. 즉 이들 다양한 설명들이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독자의 독서 경험과 결부되지 못하는 어떤 특성을 공통적으로 안고 있지 않은지, 또 그러한 이유로 Austen에 대한 평가들이 적절한 연관을 서로 맺지 못하고 다양성 자체로 맹목적으로 나갈 위험을 내포하고 있거나 않은지는 한번쯤 의심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둘 때 우리는 ‘규모와 품격’의 문제를 좀 색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Q.D. Leavis의 입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we still have to ask why the Austen novels are read with deep interest by the products not only of Anglo-Saxon cultures or even of European cultures, but by peoples of cultures one would have thought hopelessly alien to those. ... it is worth asking why, since, if one thinks of it, it is only Jane Austen ... who is loved and esteemed by her readers as a person.⁷⁾

Leavis가 Austen에 접근하는 방식은 독자의 관심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말하자면 Austen 비평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폭넓은 독자에게 읽힌다는 점과 그야말로 독자에게 “인격적으로(as a person)” 다가가는 점이라 함으로써 ‘규모와 품격’의 문제에 색다른 차원의 접근을 보여준다. 사실 Austen에게서 놓칠 수 없는 두드러진 점은 흔히 고

7) Leavis, 같은 책, 26-7면.

전이라 불리는 많은 여타 작품들과는 달리 그가 갖고 있는 폭넓고도 지속적인 인기이다. 이는 ‘고전이란 널리 알려져 있되 사람들이 잘 읽지는 않는 것’이라는 통설로 보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 최근에도 그의 *Sense and Sensibility*가 영화화됨으로써 꾸준한 그의 인기를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많은 고전들 중에서도 *Pride and Prejudice*의 경우는 청소년들이 가장 친숙하게 접하는 작품의 하나이다.

이러한 현상은 적어도 전문적인 비평가들이 인정하는 Austen의 가치와는 별개로 대중적인 독자들 역시 스스로가 의식하든 못하든 간에 꾸준히 그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인데, 이렇듯 독자들이 280년 이상을 두고 향유하면서 인정하는 Austen의 가치를 보면, 그들이 느끼기는 하면서도 의식적인 언어로 표현해내지 못한 Austen의 가치, 혹은 그저 ‘감동’이나 ‘재미’라는 말로밖에 표현 못한 평범한 독자의 눈이 포착하는 Austen에 오히려 그의 진면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듯 독자가 ‘감동’이나 ‘재미’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Austen의 세계를 본격적인 비평의 논의 선상에 옮겨놓는 작업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 이 글의 입장이다. 어차피 Austen 비평사가 정답이 없는 복수 해답의 난립상을 보이는 형편에 하나쯤의 엉뚱한 준거틀을 내세운다고 해서 엄청난 과오가 더해지지는 않을 거라는 점이 위안도 되고, 어쩌면 다양한 비평적 해석들이 서로 보강되면서 결실있는 것으로 나갈 가능성이 독자의 감동이라는 평범한 기준을 환기함으로써 열릴지 모른다는 기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문학작품이 전진한 독자를 통해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너무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길 만한 오류도 있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짚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욕심도 전혀 허황된 것은 아닐 것이다.

II

Austen의 ‘규모와 품격’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익숙한 설명들은 독자가 얻는 감동, 혹은 Austen이 주는 지속적인 재미라는 기준에서 검토해 보면 미흡한 구석이 쉽게 드러난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답변은 Austen의 작품 세계가 작은 범위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하되 그 문학적 가치를 형식적 완성도의 차원에서 높이 사는 견해이다. 앞서 인용한 Van Ghent의 입장이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는데, Butler가 좀 더 세분화해 놓은 구도에 따르면 이러한 해석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뉠 수 있다. 첫째는 ‘Austen이 당대의 역사적 삶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의 한정된 세계 내에서는 뛰어난 자연주의자였다’라는 견해이며 셋째는 ‘개인의 심리를 그리는 데 있어서도 자연주의자였으며 바로 그 점이 영소설의 전통에서 Austen을 Richardson의 계승자로 만드는 점이다’라는 견해이다.⁸⁾ 이러한 견해들은 크게 보아 Austen의 작품 세계가 종류 정의 소소한 일상사에 국한된 것이었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세계를 정교하게 그림으로써 사실주의적 전통의 모범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으로 정리된다. 말하자면 Austen의 관심사의 협소함은 인정하되 그것을 다루는 예술적 기교에 문학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셈인데 과연 앞서 언급한 장점 외에도 Austen의 예술적 기교는 이미 소설 전통의 정점에 올려놓아 손색이 없다. 예를 들어 Austen의 아이러니나 자유간접화법 등을 다루는 솜씨는 문학용어사전에서 교과서적인 용례로 거론되고 있으며 Wayne

8) Butler, 같은 책, 294-5면 참조.

Booth가 *The Rhetoric of Fiction*에서 분석하듯 Austen의 절묘한 시점의 사용 등은 가히 “서술의 수사학에서 두말할 나위없는 거장 축에 드는 이”⁹⁾의 솜씨로 보아 모자라지 않는다. 그 밖에도 위트와 유머를 드러내는 Austen의 탁월한 언어적 기교나 Richardson을 계승하여 인물의 내면을 섬세하게 드러내는 기량만으로도 Austen의 작품이 고전으로서 갖는 가치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Austen의 예술적 기교에 강조를 두는 설명은 독자의 감동, 혹은 재미라는 기준에서 볼 때 아주 만족스런 설명은 되지 못한다. 우리는 과연 Austen의 말 재미, 혹은 예술적으로 흡잡을 데 없는 기교를 통해 감동을 얻고 지속적으로 재미를 느끼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 보게 된다. 잘 짜인 것으로 치자면 잘 짜인 하이틴 로맨스, 비할 데 없이 짜임새있는 헐리우드식 오락영화들이 있지만 그것이 주는 재미는 Austen의 소설이 주는 재미나 감동의 깊이를 갖지 못한다. 우리는 하이틴 로맨스나 헐리우드 영화를 볼 때 그것들이 Austen의 소설들처럼 반복해서 읽어도 재미를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말하자면 Austen의 ‘잘 짜인’ 소설은 그런 잘 짜인 것들과는 달리 280년 이상을 두고 두루 애독되는 재미를 갖는 것이고 보면, 이것은 ‘고전’이 갖는 예술성이란 여느 작품에 비해 단순히 잘 짜인 정도가 높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짜임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Austen의 소설이 예술적으로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반복된 재미를 준다면 그의 ‘예술적 완성도’는 분명히 하이틴 로맨스나 헐리우드 영화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고, 또 그에 기인하는 재미는 순수한 형식미에서 느끼는 몰가치적인 재미와도 다른

9) Wayne C. Booth, *The Rhetoric of Fiction* (Chicago: U of Chicago P, 1983) 244면.

것일 터이다. 우리가 그저 예술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로 Austen의 고전적 가치를 얼버무리려 할 경우 그것은 헐리우드 영화나 하이틴 로맨스와 달리 Austen의 인기가 갖는 생명력의 본질에 이르는 설명은 되지 못하는 것이다.

Austen 작품의 예술적 기교와 형식미가 독자의 감동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만족스러운 설명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Austen의 문학적 세계를 형식미 뿐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차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설명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즉 Austen이 작은 세계를 그리고 있지만 그것을 ‘완벽한 예술품’으로 만들었기에 그 작은 세계는 단순한 가정사를 넘어 당대 영국의 전체적인 상황을 담아 내는 세계가 되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규모가 큰 소설보다 더 전형적으로 당대의 삶을 드러낸다는 설명이다. Butler가 Austen의 작은 세계에 얼마나 당대의 정치적인 이념들이 민감하게 드러나는지를 밝히고, Kirkham이 Austen의 작품에서 당대 사회의 여성의 문제가 합리주의적 여성해방론의 입장에서 얼마나 절실하게 취급되는지를 보여줄 때 바로 이러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Austen의 작은 범위를 더 큰 세계의 총체적인 삶의 축도로 이해하는 설명 역시 독자의 감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설명의 전부가 되지는 않는다. 독자가 문학작품에서 얻는 감동이 다분히 기교적인 차원에 기인하는 순수 심미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문학작품이 사회상이나 역사적 문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얻는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Austen의 작은 세계가 더 큰 세계를 드러낸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떤 역사적 단계에 처한 사회의 구체적인 갈등이건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이건 간에 우리는 단순히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동을 얻지는 않는다. 그러한 감동이 독자가 소설에서

얻는 감동의 본질을 구성한다면 차라리 우리는 역사서를 뒤져보거나 역사를 쉽게 이야기로 재구성한 책들을 찾아 읽는 편이 나을 것이다. 앞서 인용한 Leavis의 관점을 빌자면 “독자에게 인격적으로(as a person) 존경받고 사랑받는 Austen”은 그의 소설이 어떤 역사적 문제를 다룬다거나 얼마나 깊이있게 다루는가의 관점에서만 설명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한 사회를 다루는 Austen이 인격적으로 다가올 때 의미있는 것이며, 그가 역사적 차원의 가치들을 다룬다면 “그러한 가치들이 독자에게 인격적으로 전해 오는”¹⁰⁾ 것이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독서 반응의 순서를 따져 보더라도 독자는 우선적으로 Austen의 작품을 통해 과거와 대면하게 되지 먼저 과거를 알고 나서 Austen의 작품에 감동을 느끼지는 않는다. Roger Gard가 적절하게 지적하듯이 “Austen 수준의 작품은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과거와의 풍성한 관계를 맷게 하며 또 그 과거를 우리의 현재의 일부가 되게끔 만드는 친절한 매개자”¹¹⁾인 것이다. 독자가 Austen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8세기의 독자들이 갖고 있던 코드를 이해해야 한다는 Butler의 전제¹²⁾는 독자가 자기 시대의 잣대로 과거의 작품을 임의로 훼손할 위험성을 경고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타당성을 가진다. 그러나 Butler를 겨냥하여 “‘Austen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18세기 소설의 상당량을, 혹은 적어도 그에 대한 책 몇 권쯤은 읽어야 한단 말인가?”¹³⁾라고 묻는 Gard의 말 역시 전적으로 타당하다. 왜냐하면 독자가 과거를 체험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작품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독자

10) Leavis, 같은 책, 28-9면.

11) Roger Gard, *Jane Austen's Novels* (New Haven: Yale UP, 1992) 5면.

12) Butler, 같은 책, xxxi 참조.

13) Gard, 같은 책, 3면.

가 Austen을 통해 과거를 만난다 할 때 그것은 Austen이 보여주는 역사와 독자가 받아들이는 역사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것이지 독자가 미리 아는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관심이 되는 것은 전문적인 역사 지식을 쌓지 않고도 독자가 Austen에게서 만나는 역사, 즉 Austen이 독자에게 느끼게 하는 당대 사회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작품의 심층에 꼬깃꼬깃 숨어 있어서 역사에 정통하거나 전문적인 감식안을 가진 독자에게만 드러나는 종류의 과거가 아니라 Austen이 독자에게 체험하도록 보여주는 과거가 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그러한 역사적 지평이 그의 문학적 가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는 애초의 출발점을 다시 기억해 볼 때, Austen이 다루는 당대 사회의 문제란 그저 능동적으로 제시되는 차원을 넘어서 그것이 제시되는 깊이에 따라 작품들 간의 문학적인 가치를 구별하는 핵심적 기준이 되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Austen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Austen이 보여주는 역사가 있다면 과연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역사를 드러내는 차원에 따라 개별 작품들의 성취가 어떻게 달라지고 독자의 감동에 어떤 차이를 주는지를 해명하는 것이다.

III

Austen의 작품에 나타난 역사를 살피고 그것을 작품의 가치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삼는 문제에 굳이 하나의 접근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독서 경험이 작품을 매개로 하여 작가와 독자라는 두 축이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작가가 보

여주는 역사'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을 것이고 '독자가 읽어 내는 역사'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독자가 작품을 수용하는 심리적 기제를 따져 보아야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작업은 필자의 역량을 넘어설 뿐더러 '작품을 통한' 역사 경험을 알기 위해 작품과 무관한 심리학적 지식을 끌어 들여야 하는 자가당착에 빠질 우려도 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작가가 보여주는 역사'에 초점을 두기로 하며, 그 구체적인 접근틀로서 Austen의 후기 작품을 구성의 측면, 그 중에서도 지리적 모형에 강조를 두어 읽어보려 한다.¹⁴⁾

'지리적 모형'이란 특별한 문학적 입장을 등에 업은 개념은 아니고 다만 구성을 중심으로 읽되 거기서도 범위를 한정하여 장소의 이동이라는 틀을 따라 읽으려 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한 개념이다. 구성의 문제를 '지리적 모형'에 맞출 경우에 자칫 인물의 복합적인 심리를 놓칠 위험이 가장 크게 대두되는데, 이 글에서는 오히려 현대 소설에 익숙한 우리의 선입견을 배제하고 보면 Austen의 인물이 매우 유형화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자 한다. Austen의 인물들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인물 자체의 성격이 아니라 화자가 인물에 거리를 두고 그를 요모조모로 뒤집어 보게 만드는 서술의 힘 때문인데, 실제로 Austen의 인물들은 각

14) Austen의 작품에 대해 '지리적 모형'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많은 평자들이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장소들을 어떤 도덕적 가치와 연결지어 읽는 독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에서 중요하게 참조하는 Q.D. Leavis나 Tony Tanner의 글에서도 상당 부분은 Austen 작품의 장소와 도덕적 가치의 연관성에 대해 할애하고 있는데, 이 글은 그러한 비평가들이 하나의 부수적인 항목 정도로 삼는 장소나 지형의 문제를 작품 독법의 전면에 부각시켜 보려 한다. 그리고 그것이 전체 구성을 이어주는 큰 틀이라는 점에 강조를 두고, 지리적 모형에 비추어 전체 구성을 다시 볼 때 우리가 Austen에 대해 익숙하게 대하는 도덕적 가치의 문제들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자가 하나의 가치를 대변하는 듯한 유형적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 예컨대 Austen의 인물들은 James Joyce나 Virginia Woolf의 작품에서처럼 상황에 얹혀 누가 선하고 악한지의 구분이 모호한 인물들과는 다르다. 그들은 크게 보아 경박한 자와 신중한 자, 방탕한 자와 미덕을 가진 자, 자유분방한 자와 보수적인 자 등의 유형에 무리없이 들어맞는다. 이런 유형적 인물들은 그들이 어떤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구분되고 그들이 선택하는 결혼의 모습에서도 서로 구별된다.

Austen 인물들의 유형적 특성은 그들이 대표하는 가치가 어떤 지명과 늘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강화된다. 사실 *Mansfield Park*의 경우처럼 Austen에게서 한 가족의 집이나 사는 장소가 단순한 배경을 넘어서 “문명 자체에 필적하는 가치 체계를 대변한다”¹⁵⁾는 점은 많은 평자들이 지적하는 사실인데, 등장 인물은 늘 그의 출신 지명을 통해 소개되고 이들 장소의 가치를 그의 성격이나 행위를 통해 보여주도록 제시되는 것이다. 이처럼 각양의 인물들이 하나의 지명을 대표하고 그곳의 가치를 대변한다는 점은 자칫 유형적 평면성을 갖는 듯하지만 그것들을 서로 얹히고 충돌케 하여 다차원적인 관계를 맺게 만드는 것은 바로 배우자를 찾아다니는 여주인공의 존재이다. 예를 들어 *Northanger Abbey*에서 Catherine Morland 양이 여행을 떠나는 순간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Mr Allen, who owned the chief of the property about Fullerton, the village in Whiltshire where the Morlands lived, was ordered to Bath for the benefit of a gouty constitution; — and his lady, a

15) Christopher Gillie, *A Preface to Jane Austen* (New York: Longman, 1985) 154면.

good-humoured woman, fond of Miss Morland, and probably aware that if adventures will not befall a young lady in her own village, she must seek them abroad, invited her to go with them.¹⁶⁾

여기서 작가는 젊은 여성의 마땅히 결혼할 배우자를 주변에서 구할 수 없다면 찾아 나서서라도 구해 와야 한다는 식의 세평을 전달하고 있다. 물론 이 이야기는 Mrs Allen의 생각에 아이러니를 실어서 작자가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곧이곧대로 작가의 주장으로 들어서는 안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Mrs Allen의 입장으로 대변되는 세평에 불과하다. 그러나 작가는 이러한 세평에 착안하여 젊은 여성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 떠나는 부분을 소설의 출발로 잡고 있으며, 결혼이라는 진부한 주제를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만드는 시발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정해진 배필과의 결혼은 이 ‘모험’ 보다는 더 자연스럽기는 해도 이야기거리로서의 흥미는 아무래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배우자를 찾아나서는 지점에서 결혼은 흥미 있는 이야기거리가 되고 독자는 이 여주인공이 발 닿는 곳, 옮겨 다니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Tonny Tanner의 경우는 이 ‘모험’이라는 주제를 “세상으로 들어가기(*enter into the world*)”라는 말과 같은 것으로 풀이한다. 말하자면 Austen의 여주인공에게서 ‘세상’이란 곧 적합한 결혼 상

16) Jane Austen, *Northanger Abbey*, ed. E. Ehrenpreis(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2) 40면. *Northanger Abbey*는 이 책을 텍스트로 삼았으며 다른 작품의 경우 *Mansfield Park*, ed. Tony Tanner(Harmondsworth: Penguin, 1966)과 *Persuasion*, ed. D.W. Harding(Harmondsworth: Penguin, 1965)를 텍스트로 삼았다. 이하 본문에서의 인용은 면 수만 밝히되 긴 인용문의 경우에는 구분이 쉽도록 각각 NA, MP, PS라는 약어를 첨기하기로 한다.

대를 만나서 세상의 질서 안에 안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과정은 곧 좋은 구애자와 나쁜 구애자를 만나고 변별함으로써 주인공의 인식이 넓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¹⁷⁾ 이렇듯 여주인 공이 결혼 대상을 찾는 행위는 세상을 경험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 되고, 그것은 곧 배필을 찾기 위한 모험이 세상의 각양각색의 가치들을 접하며 변별하고 선택하는 모험과 같은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여주인공이 어떤 남자들을 만나는가의 과정을 그녀가 어떤 세상의 가치들과 접하는가의 문제와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물론 Austen의 모든 소설이 *Northanger Abbey*의 경우처럼 노골적으로 여행의 구도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예컨대 *Mansfield Park*의 경우에는 여주인공이 이동하면서 어떤 가치를 찾아 다닌다기보다는 그녀가 서 있는 공간으로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일견 상반되는 구도를 취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인물의 출신 지역과 신분 등이 명확히 밝혀질 뿐 아니라 그것이 그의 도덕적 측면과 밀접한 연관 속에 제시된다는 점에서 여주인공에게 더 큰 세계와의 경험을 허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적인 주인공이 낯선 지역으로 나아가는 경우 뿐 아니라 정적인 주인공에 낯선 가치를 구현하는 인물이 들어오는 경우를 모두 우리는 여행이라는 모티프로 보아 무관하며 그러한 여

17) Tonny Tanner, *Jane Austen* (Cambridge: Harvard UP, 1986) 56면 참조.

Tanner의 말이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점은 Myra Stokes의 연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컨대 그는 Austen의 시대에 '세상(world)'이라는 단어가 오늘날과는 달리 상류 사회나 사교계를 의미하는 제한된 의미로 쓰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Austen의 여주인공이 결혼 대상을 찾아서 여러 파티 석상을 드나드는 것은 곧 그 여성의 사교계 진출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 여성의 제한된 상황하에서 접할 수 있는 세상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Myra Stokes, *The Language of Jane Auste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1) 15-6면 참조할 것.

행의 행적을 쫓아 주인공이 도달하는 장소, 혹은 주인공에게 다가오는 장소를 포괄하여 지리적 이동의 틀에 맞추어 다양한 가치들과의 만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IV

여주인공의 동선을 추적할 때 가장 고전적으로 소설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 *Northanger Abbey*이다. Catherine의 행방은 Whiltshire에서 Bath로, 그리고 *Northanger Abbey*를 거친 후 다시 Whiltshire로 복귀하는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 말하자면 그 것은 순진한 주인공이 여러 지역을 경험을 하고 나서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형인데, 이러한 순환모형은 독자에게는 매우 친숙한 것이지만 Austen의 다른 작품들에서는 흔하지는 않다. 이처럼 Austen이 자신의 다른 작품들과는 변별되면서도 전통적인 모형에는 들어맞는 구도를 사용했다는 점은 이 작품이 결혼의 도덕적 가치를 탐색하는 중심 줄기 이외에도, 당대의 소설적 유행, 특히 Radcliff의 고딕소설에 대한 패러디로서의 기능을 염두에 두었던 데에 까닭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Northanger Abbey*라는 장소가 패러디로서의 기능을 극적으로 소화하면서도 동시에 속물적인 General Tilney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장소로 쓰이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에는 Austen의 다른 작품에서 보이는 도덕적 탐색의 주제 역시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Catherine의 행적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지형은 London과 *Northanger Abbey*이다. 물론 작품에서는 Bath와 *Northanger Abbey*만이 실질적인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Bath는 그 자체가 어떤 가치를 담아 내는 곳이라기보다는

Catherine이 접하는 세상의 축소판으로 기능하고 있고, 실제로 그녀의 행방을 끌어당기면서 갈등하는 두 힘은 London과 Northanger Abbey의 가치를 구현하는 인물들이다. Bath는 영국의 이름난 휴양지요, 온갖 계급의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라는 점에서 Catherine이 세상의 모든 경험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다. Whiltshire가 주인공의 경험 이전의 공간, 사회 바깥의 공간이라면, Bath는 그와 대비되는 경험의 공간, 사회 자체이자 그녀가 안착할 곳을 찾을 때까지 움직여야 하는 공간인 것이다. Catherine과 Mrs Allen이 Bath에서 처음으로 가는 파티를 묘사할 때 “군중(the crowd)”, “무리(the mob)”, “떼거리(the throng)” 등의 단어가 빈번히 사용되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Bath는 나름의 가치를 구현하는 곳이라기보다는 모든 가치가 뒤섞여 있는 곳으로서 세상의 축소판이며 따라서 그 공간에서 Catherine에게 의미를 줄 가치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다.

Catherine에게 의미를 지닌 가치는 한편으로는 John Thorpe가 구현하는 London의 가치로, 다른 한편으로는 Henry Tilney가 구현하는 Northanger Abbey의 가치로 다가온다. 양자는 Catherine의 배우자로서 누가 더 적절하며, 누가 선택될 것인가의 문제를 축으로 하여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양자의 승패, 혹은 미덕과 해악의 판가름은 일찌감치 나버린다. 실상 다른 두 작품에서도 주인공이 처음부터 옳은 쪽을 선호하기는 마찬 가지인데, 이 작품에서는 독자의 판단까지 일찌감치 내리도록 작가가 유도한다는 점에서 다소 홍미가 감소된다. 예를 들어 Catherine이 John과 함께 마차를 타고 가는 장면을 보자.

‘Stop, stop, Mr. Thorpe,’ she impatiently cried, ‘it is Miss Tilney; it is indeed. — How could you tell me they were gone? —

Stop, stop, I will get out this moment and go to them.' But to what purpose did she speak? — Thorpe only lashed his horse into a brisker trot. ... But Mr. Thorpe only laughed, smacked his whip, encouraged his horse, made all noises, and drove on. (NA, 103)

이는 Henry와의 예정된 산책을 기다리던 중에 John이 와서 Henry 일행이 아침 일찍 Bath를 떠나는 걸 봤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작품으로 치면 채 중간도 나 가지 않은 지점인데 이미 John이라는 인물의 됨됨이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Catherine도 어렵풋이 느끼게 되며 독자들도 앞으로 그가 저지를 사악한 음모에 별로 놀라지 않을 만큼 감을 잡게 되는 장면이다. *Mansfield Park*의 Henry Crawford나 *Persuasion*의 Mr. Elliot의 경우에는 여주인공의 태도야 처음부터 선명하게 드러나더라도 독자는 말미에 가서야 그들의 악덕을 명확하게 분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작품이 미리 John과 독자와의 심정적 거리를 그어 놓는 점은 특이하다. 이렇게 결혼 이야기라는 틀에서 보면 분명히 재미를 반감할 요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흥미를 잃지 않게 되는 것은 나중에 밝혀지듯 John Thorpe와 General Tilney의 은밀한 공모라는 다른 주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두 명의 구혼자 중에 누가 나은지를 고르는 결혼 이야기가 *Northanger Abbey*가 주는 재미의 핵심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결혼 이야기라는 중심 구조는 중간부에서 일찌감치 탈락한 London 출신의 John Thorpe가 끝까지 Catherine의 운명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다른 구조에 의해 재미를 갖게 되며, 따라서 우리는 *Northanger Abbey* 출신의 Tilney 부자가 John과 맺는 대립과 밀착의 관계를 해명할 때 비로소 Catherine의 결혼이야기

가 갖는 온전한 재미를 따라 잡을 수 있게 된다.

*London*의 가치와 *Northanger Abbey*의 가치와의 대비는 각각 아버지가 없다는 점과 어머니가 없다는 점으로도 쉽게 갈려진다. Austen의 다른 작품들을 염두에 둔다면 아버지의 부재는 권위의 부재, 즉 자아의 원칙없는 해방을 의미하기 쉽고, 어머니의 부재는 권위의 과잉으로 인해 명분뿐인 덕목들을 의미하기 쉽다. 과연 John의 경우, “자기 확신에 찬 사람(a self-assured man, 69)” 이자 “떠벌리는 성향(the propensities of a rattle, 85)”을 가진 인물로서 어떤 규범의 밑에서 절제된 행동을 배우지 못한 인물로 묘사된다. 이처럼 지나친 자기 확신이나, 허영심, 사회적 규범을 결핍하는 모습은 이후 등장하는 *London* 가치의 낭만적인 측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낭만적인 가치란 그것이 적절한 자기 규제의 원칙이 없을 때 자아의 해방이 아니라 자아의 파멸을 의미하는 힘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Isabella가 Henry의 수입이 변변치 않음을 알고 파렴치하게 파혼한다든가 John이 수중에 넣지 못한 Catherine을 General Tilney에게 ‘팔아 넘기려’는 사실에서도 보이듯, 그들이 구현하는 가치는 부의 획득을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의 인간적 책임의식을 버릴 수 있다고 믿는 종류의 것이다.

*London*의 가치가 무원칙한 자기해방과 부정적인 낭만성을 가진다는 점이 아버지의 부재로 드러난다 할 때, *Northanger Abbey*가 보여주는 가치의 불구성은 어머니의 부재로 대표된다. 어머니의 존재가 없다는 것은 권위가 힘을 갖고는 있으나 그 권위의 내용을 알뜰하게 꾸려 나갈 덕성을 결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아버지의 존재란 폭력적 권위만 가질 뿐 스스로의 규범을 채울 내용을 잊은 존재이며 따라서 *London*의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천박한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은 가진 존재이다.

General Tilney가 자식들에게 휘두르는 폭력적인 권위는 그가 시간을 엄수할 것을 강요하는 점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이러한 형식적인 질서에 대한 집착은 곧 그의 내용의 궁핍성을 반증한다. 따지고 보면 시간의 숫자놀음에 인간적 활동을 종속시키려는 성향은 곧 액수의 많고 적음에 맞춰 인간을 파악하려는 Thorpe 남매의 London식 가치와 근본적으로 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Catherine에 대한 John의 음모와 쉽게 손잡을 수 있는 인물이다. 그는 예스러운 Northanger Abbey의 주인이되 사원의 알맹이는 빼고 껍질만 차고 앉은 주인이요, 전통의 자리에 앉아 있되 전통이 갖는 긍정적인 덕성은 잊어버림으로써 새로운 부(富)의 논리에 자신을 내맡긴 구세대이다. Tony Tanner의 설명에 따르면 General Tilney는 “비인간화된 탐욕스런 소비자(dehumanized consumer-acquisitor)”¹⁸⁾로서 당대의 산업혁명이 만들어 낸 새로운 소비충동의 징후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사실 Austen의 시대가 본격화된 산업혁명기라기보다는 산업혁명을 목전에 둔 시기였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Tanner의 주장이 다소 성급한 결론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General Tilney의 모습은 Sir Bertram이나 Sir Walter처럼 다른 작품에 등장하는 구세대들이 돈을 모으고 쓰는 방식과는 확연히 구별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부의 논리를 보여주는 인물임은 분명하다. Catherine에게 실망을 안겨 준 Northanger Abbey의 “현대화(modernized)”된 모습은 그 주인인 General Tilney가 ‘현대화’ 되었음을 보여주며, 그의 타락한 현대화는 곧 새로운 부의 논리에 종속된 구질서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렇듯 London과 Northanger Abbey를 움직여 나가는 부의 논

18) Tanner, 같은 책, 65면.

리와 그것의 인간적 불모성을 놓고 독자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물의 부도덕성을 가려낼 수 있는 것은 바로 Whiltshire의 존재 때문이다. 작가는 London이나 Northanger Abbey의 삶을 그리되 그것을 Whiltshire의 삶에다 비추어 놓음으로써 그 도덕적인 불구성을 폭로해낸다.

Her own family were plain matter-of-fact people, who seldom aimed at wit of any kind; her father, at the utmost, being contented with a pun, and her mother with a proverb; they were not in the habit therefore of telling lies to increase their importance, or of asserting at one moment what they would contradict the next.(NA, 85)

이 문맥이 갖는 의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Whiltshire가 “재담(pun)”이나 “속담(proverb)”등의 전래적이면서 소박한 삶의 진실을 간직하는 장소라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그러한 삶의 방식에 비추었을 때 John이 구현하는 가치가 일탈적이고 기만스러운 것임을 꼬집는 점이다. 이렇듯 Whiltshire가 갖는 미덕에 비추어 외부의 가치를 판단하는 틀은 Northanger Abbey의 가치에도 적용된다.

Their tempers were mild, but their principles were steady, and while his parent so expressly forbade the connexion, they could not allow themselves to encourage it.(NA, 245)

이 구절은 딸의 급작스런 귀향을 납득하지 못했던 Morland 부부가 진상을 알고 나자 취하는 태도를 묘사하는 부분인데 Morland 부부가 Tilney 가문과의 혼사가 수지맞는 사업임을 알면서도 맹목

적으로 찬성하지 않고 General Tilney의 행위의 적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견실한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적어도 상대에 대해 자존심을 지키려 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보여주는 미덕은 소박하되 그저 맹목적인 순박함과는 거리가 멀다. Whiltshire는 세상의 가치를 판단할 만한 그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기준에 동반되는 자신의 미덕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Whiltshire가 구현하는 가치가 그 나름의 덕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것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지형적인 위치로 본다면 Whiltshire는 Bath와는 대립되는 세계이다. 그 곳은 Catherine의 경험 이전의 세계이거나 경험 이후의 세계이지 경험하며 살아갈 세계는 아닌 것이다. Catherine의 여행의 출발에서 부모가 보여준 바깥 세계에 대한 무지함은, 그 좋은 덕성과 더불어 여전히 여행의 종착지에 남아 있으며 Catherine의 부모는 딸의 경험을 이해하지는 못한다. 예컨대 Catherine의 갑작스런 귀향 후에 사건의 전모를 들은 Morland 부인은 여러모로 딸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사실 그녀의 말이 상황에 대해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Catherine도 알고 있을 정도이다.

There was a great deal of good sense in all this; but there are some situations of the human mind in which good sense has very littler power; and Catherine's feelings contradicted almost every position her mother advanced. (NA, 236)

이처럼 Wiltshire의 가치가 갖는 무력성은 최종적으로 Catherine과 Henry Tilney가 맺어지는 결말이 전적으로 Henry의 혜명과

General Tilney의 태도 변화에 의존한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General Tilney는 딸이 유력한 작위귀족과 결혼하게 됨으로써 Henry의 혼사를 대하는 마음이 누그러져서 아들이 “제 하고 싶으면 바보같은 짓을 해버리라(‘to be a fool if he liked it’, 246)”고 봐주게 된 것이지 그의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Wiltshire나 Henry가 가진 가치와 교류함으로써 마음을 고쳐먹지는 않은 것이다. 딸을 ‘세상에’ 내보내려면 Whiltshire 세계는 전적으로 세상의 힘에 따라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비록 “건강한 분별력(good sense)”은 있다고 해도 Whiltshire는 세상의 논리에 대안적인 어떠한 힘도 될 수는 없는 것이다. Bath의 세계는 Whiltshire와는 다른 가치들이 뒤섞여 굴러가고 있으며 Whiltshire는 Bath의 세계의 중심으로 들어설 가능성은 끝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여주인공의 결혼이 타락하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 달콤한 꿈을 맛보는 동화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제 덕성은 Whiltshire 바깥의 세계, 즉 Bath의 세계에서 다시 모색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Mansfield Park*와 *Persuasion*으로 이어지는 과제인 것이다.

Whiltshire의 가치가 Catherine의 경험의 세계에서 괄호 바깥에 있는 세계라면 그 경험의 세계 안에서 덕성을 갖춘 인물로는 Henry Tilney를 들 수 있다. 그는 Catherine의 이상적인 배우자 이자 이 작품에 부재하는 진정한 아버지의 자리를 메우는 인물이다. 예를 들어 그는 허구적이고 비현실적인 독서에 대해 역사서의 가치를 일깨우기도 하고, *Northanger Abbey*에 대한 Catherine의 환상을 고쳐 주기도 한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면 이 작품에서 Henry야말로 유일하게 Catherine의 아버지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는 인물이다. 그는 인간성은 좋지만 무력한 Mr. Morland나 강력한 부권을 갖고는 있지만 그에 걸맞는 미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General Tilney의 결점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Catherine을 Whiltshire의 세계로부터 Bath의 세계로 안전하게 자리잡게 만드는 인도자이다. 이처럼 Henry가 무력한 구세대(Mr Morland)나 타락한 구세대(General Tilney), 혹은 잘못 인도된 신세대들의 한계를 넘어선 가치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그는 Catherine에 대한 참된 아버지상을 구현하는 인물이자 Northanger Abbey의 진정한 주인이기도 하다. 그는 John Thorpe와 General Tilney의 음험한 공모의 전말을 알려주는 인물이며 무엇보다도 그는 한 여성의 인간적인 덕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부나 지위에 얹매이지 않고 결혼을 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작품의 모든 인물을 지배하는 비인간적인 부의 논리를 극복하는 인물이다. 그는 신세대이되 돈과 인간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구별할 줄 아는 어른스러운 신세대이며, Northanger Abbey의 주인이되 타락하여 부의 논리에 맹목적으로 내던져진 아버지와도 다르다는 점에서 그는 전통의 진정한 계승자이다.

그러나 그가 계승하는 Northanger Abbey의 전통이 과연 무엇인지, 그의 덕성은 과연 어떤 뿌리에 기반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 길이 없다. 그가 보여주는 덕성은 General Tilney가 보여주는 행동양식과 아무런 갈등없이 처음부터 이미 획득이 된 것으로 주어져 있다. 고작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가 편향되지 않은 독서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전전한 인식을 획득했다는 정도이다. 말하자면 그는 자기목적적인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Bath의 세계에서 예외적으로 인간적 온전함을 지킨 인물이며 파렴치한 아버지에게서 돌연변이로 나온 인물이다. 또한 그는 자신의 계급적 위치에 어긋나는 결혼을 우연의 도움에 힘입어 승인받는 인물이다. 이런 점으로 인해 그가 보여주는 덕성은 선뜻 독자의 공감을 얻기가 힘들며, 그와 Catherine과의 행복한 결말은 독자에게 행복감을 주지만 다소 통속적인 것으로 비치기도 한다. 권위와

명분뿐인 아버지 세대의 가치와 갈등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확립 하려는 얕은 세대의 모습, 이것을 우리는 *Mansfield Park*에 와서 만나게 된다.

*Mansfield Park*의 세계는 *Northanger Abbey*에 비해 그 움직임의 폭이 현저하게 좁아지지만 작가의 모색은 더 철저해지는 세계이다. 이 작품은 앞에서 남아 있던 문제 즉, General Tilney처럼 타락한 권위의 밑에 있는 얕은 세대가 과연 어떻게 Henry Tilney와 같은 덕성을 찾아 낼 수 있는가, 도대체 그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의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드러나는데 우선 Whiltshire의 경우처럼 목가적인 공간이 사라지고 모든 지형이 가치의 모색을 시험하는 공간으로 변한다는 점과, Henry Tilney처럼 처음부터 덕성을 체득한 인물 대신에 모든 인물들이 이상적인 가치를 찾아 방황하는 것으로 그려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모는 앞선 작품에서처럼 손쉽게 이 상화한 공간을 허용하지 않고 그 가치를 사회 내부에서 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작가의 성숙한 문제의식을 엿보게 한다.

*Mansfield Park*가 사회에 존재하는 일련의 가치들을 시험하는 공간이라 한다면, 그 공간에서 가장 유력하게 힘을 겨루는 가치들은 Sir Bertram을 필두로 하는 전통적인 삶의 방식과, Henry Crawford를 다른 축으로 놓는 신세대의 낭만주의적 세계관으로 압축될 수 있다. 지리적인 모형으로 그려보자면 *Mansfield Park*와 London의 대립 양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두 개의 가치는 대등한 힘겨루기를 하고는 있지만 서로 동일한 조건에서 힘겨루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작품의 중심 공간은 *Mansfield Park*이며, 사건은 그곳의 주인 역할을 하는 Sir Bertram의 자리에 London의 가치가 들어와 도전장을 내미는 구도로 전개된다.

Mansfield Park가 구현하는 가치는 토지에 기반한 전통적인 영국 귀족사회의 가치규범이다. 이곳은 Sir Bertram이라는 작위 귀족이 갖는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힘을 발휘하는 곳이고, 무능한 Lady Bertram을 대신하여 Mrs. Norris에 의해 어머니의 역할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외관상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리하여 적어도 Sir Bertram이 Antigua로 떠나기까지는 유별나게 잘못된 인물로 보이는 것은 Fanny Price뿐이다. 그러나 어머니를 두고서 Mrs. Norris라는 대리로 역할자에 의해 어머니의 역할이 수행된다 는 사실이 암시하듯이 이 가문에서 유지되는 외관상의 질서란 아버지의 권위에만 의거했던 것이고 Sir Bertram의 출타를 계기로 하여 자식들은 그들을 놀려 왔던 권위로부터 해방될 여지를 갖게 된다. 여기에 더해 London으로부터 Crawford 남매가 찾아옴으로써 Sir Bertram에 의해 유지되던 질서는 전면적인 위기를 맞게 된다. **Mansfield Park**는 이제 일방적인 아버지 권위와 유기되는 어머니의 역할을 복원할 자기 정화의 방법을 모색하지 못한다면 London에서 밀려 들어 온 새로운 세력에 자리를 내주어야만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여기서 분명히 할 점은 **Mansfield Park**와 **London**의 가치가 우연한 기회에 조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Mansfield Park**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삶의 규범을 지키고 있는데 느닷없이 **London**의 뜨내기들이 들어와서 물을 흐려 놓는 것이 아니라 이미 **Mansfield Park** 자체가 그러한 침입을 허용할 내적 필연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완고한 아버지의 폭력적 권위라는 것이 곧 아버지 존재의 자기 분열을 은폐하는 외관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미 **Northanger Abbey**에서 살펴보았는데 **Mansfield Park**에서의 아버지 존재인 Sir Bertram도 전형적인 토지귀족의 모습에 꼭 맞지는 않는 인물이다. Sir Bertram은 서인도제도에도 땅을

갖고 있으며 그곳에서의 사업상의 일은 장기간의 출타를 필요로 할 만큼 그에게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그가 소득을 얻는 방식이 전형적인 토지귀족의 삶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여준다. 그가 자신의 토지 외에 손을 대고 있는 일이란 당시의 신대륙 사업이 그렇듯 기본적으로 농촌 지주의 업무와는 구별되는 사탕무 무역에 관련된 사업이다. 이를 두고 Tonny Tanner는 Sir Bertram이 “영국의 토지 자산에 연결된 가치들을 믿는 한편으로 노예무역에서 생기는 재정적 이윤 또한 신봉하는”¹⁹⁾ 분열상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그의 Antigua에서의 사업의 성격을 뚜렷이 밝혀 주는 대목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노예무역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심지어는 꼭 그것이 무역업일 수 있는가 하는 점마저도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다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점은 Sir Bertram이 적어도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토지 귀족의 역할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며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수입의 원천이 그의 장기 출타를 필요로 할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렇듯 Sir Bertram이 보여주는 분열상은 Mansfield Park를 구성하는 전체적 삶의 규범이 혼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의 부재를 통해 맞게 되는 2세들의 혼란상은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분열된 권위 하에 잠복해 있던 삶의 욕망들이 분출되는 필연성의 결과인 것이다. 일찌기 Sir Bertram이 출타하기 전부터 장남인 Tom이 보여준 방탕한 삶의 모습이나 Maria와 Julia가 Southerton의 명팅구리 Rushworth와 London내기 Henry Crawford 사이에서 부화뇌동하는 모습, Edmund마저도 Mary Crawford의 발랄하고 생기있는 유희적 삶에 매료되는 점들

19) Tanner, 같은 책, 149면.

은 그들이 과도기적인 Mansfield Park식 삶에서 규범으로 삼을 가치를 잃었음을 보여준다. Crawford 남매가 대변하는 London식 삶의 방식이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오는 이유는 그것이 Mansfield Park의 삶의 분열된 틈을 메울 대안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여기서 Crawford 남매가 대변하는 London의 가치는 앞선 작품에서 Thorpe남매가 보여준 낭만주의적 가치와 유사하다. 그들은 부모라는 권위가 없고 음악을 좋아하며(Mary), 여행을 좋아하고(Henry), 모두 연극에 대해 탁월한 소질을 보인다. 이런 특징들은 그들이 대변하는 가치가 유동성, 개인성, 감각적인 애호 등임을 보여주며 정착한 사회의 규범과는 대치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Northanger Abbey*의 Thorpe 남매와 마찬가지로 낭만주의적 가치를 대변하는 범주의 인물이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을 통해 드러나는 낭만적 삶의 방식이 *Northanger Abbey*에 그려지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Crawford 남매는 *Northanger Abbey*의 Thorpe 남매에게서는 느껴지지 않는 매력을 갖고 있으며, 막대한 재산과 유력한 인척을 후광에 업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위가 Thorpe 남매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연극을 좋아한다는 점에서는 Yates나 Tom도 이들과 닮은 점이 있지만 Crswford 남매는 이를 방탕한 인물들과는 격이 다른 인물이다. 그들의 방종과 도락은 개인성의 옹호라는 나름의 원칙이 있으며, 또한 그들은 John Thorpe처럼 결혼을 사회적 지위를 상승하는 수단으로 계산하는 종류의 비열함은 갖고 있지 않다. 예컨대 Henry Crawford가 Maria와 비밀스런 도피를 하는 동기에는 *Northanger Abbey*에서 John Thorpe가 보여준 경제적 상승의 동기보다는 전통적 규범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측면이 더 강조된다. 낭만주의적 삶의 원칙에 대해 두 작품이 최종

적으로 내리는 판단은 마찬가지로 부정적이지만, 우리는 *Mansfield Park*에서는 좀더 차원이 높은 낭만주의의 대변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삶의 가치에 비록 후한 점수를 주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것을 단순한 탕아적 존재로 치부하지는 않으려는 작가의 인식의 전환을 엿보게 된다.

중요한 점은 Crawford 남매가 보여주는 London의 가치가 잘못된 이유가 단순히 무원칙하거나 낭만적이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들의 가치는 단순히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토지에 기반한 *Mansfield Park*의 삶의 양식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가치이며, 따라서 다소나마 남아 있는 전통적 삶의 궁정성마저 파기하려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 Mary Crawford가 자신의 하프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마차를 빌리려 할 때 그녀는 추수기에 마차를 마련한다는 것이 소작인들에게 눈총받는 짓임을 이해하지 못한다. 또한 Henry도 성직자란 굳이 자기 교구에 거주할 필요가 없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나 하면 된다는 생각을 피력함으로써 Sir Bertram의 점잖은 응수를 받게 된다.

'Human nature needs more lessons than a weekly sermon can convey; and ... if he does not live among his parishioners, and prove himself by constant attention their well-wisher and friend, he does very little for their good or his own.' (*MP*, 255)

Sir Bertram의 반론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직업과 부의 획득을 바라보는 데 있어 Crawford 남매의 London식 가치에는 결핍된 궁정적 덕성이 전통적인 규범에 남아 있기 때문인 것이다. Crawford 남매가 부를 획득하고 소비하는 데에 보여주는 태도는 *Mansfield Park*의 경직된 삶에 비해 더 매력적인 구석을 갖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공동체의 삶과 노동의 과정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은 마차라는 것이 얼마나 소작인들의 노동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성직이라는 직업이 교구민에 대한 인간적 책임을 얼마나 무겁게 안는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 공동체적인 삶의 일부로서의 재화의 성격은 보지 않으며 자기목적적인 재화의 획득과 그것의 유희적 소비를 전부로 본다는 점에서 Crawford 남매의 가치관은 “전통적 지주들이 구현하는 최상의 덕성이라 할 도덕적 가치와 책임의식”²⁰⁾까지도 부정하는 성격의 것이다. 이처럼 Crawford 남매의 London식 가치는 토지에 기반한 전통적 삶의 방식과 달리 생산에 묻어 있는 인간적 삶의 차원으로부터 재화를 분리하여 본다는 점에서 새로 태어나는 자본주의적 생존방식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London과 Mansfield Park가 대변하는 가치의 갈등에서 작가가 우위를 판별하는 방식은 역시 여주인공의 향방에 맞추어져 있다. 작가는 Fanny로 하여금 Henry Crawford가 아니라 Edmund Bertram을 선택케 함으로써 전통적인 규범 쪽에 최종적인 승리를 안겨 준다. Mansfield Park가 처한 위기는 London식 가치의 위험성을 분별하고 내부의 정화작업을 함으로써 극복되는데, 예컨대 결말부에서의 Mrs Norris의 추방, Tom의 개생, 그리고 Edmund 와 Fanny의 결혼이라는 일련의 사건들은 기성 가치가 그러한 자기 수정작업에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을 놓고 작가가 전통적 삶의 자기 수정능력을 확신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우선적으로 주목할 것은 이 작품의 결말이 보여주는 유보적 성격인데, 예컨대 Fanny와 Edmund의 결합은 Mansfield

20) Leavis, 같은 책, 57면.

Park가 Fanny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희망찬 미래를 기약하게 됨을 의미하지만 작가는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얼핏 보아 Fanny는 Mrs. Norris를 대신하는 Mansfield Park의 안주인으로 들어오는 듯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차남인 Edmund와 더불어 Thornton Lacy로 나가살이하는 며느리로 들어올 뿐이다. 사실 Fanny는 작품의 주인공이요 Mansfield Park의 중심이 될 자격을 갖춘 유일한 인물이지만 작중인물들 사이에서는 한번도 중심으로 대접받은 적은 없다. *Mansfield Park*의 결말은 이들 인물 사이에서 주변적 존재로만 대접받던 Fanny의 가치가 발견되고 그녀를 안으로 끌어들이는 구도로 되어 있지만 작가는 끝까지 그녀를 *Mansfield Park*의 완전한 중심에다 넣기는 주저하는 것이다. 정작 *Mansfield Park*의 장자요 계승권자인 Tom은 과거를 뉘우치고 간생하기는 했어도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결혼의 전망을 갖지 않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우리는 *Mansfield Park*의 결말에서 전통적 가치가 승리했다든가 질서가 회복되었다고는 쉽게 말할 수 없게 된다.

*Mansfield Park*의 ‘행복한’ 결말이 전통에 대한 작가의 확신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볼 또 다른 이유는 그 결말이 Fanny라는 인물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지리적으로 보면 Fanny는 London도 아니고 Mansfield Park도 아닌 Portsmouth라는 또 다른 지형에 근거한 인물이다. 오빠인 William과 동생 Susan을 Fanny와 묶어서 보면 그들은 분명히 London식의 삶보다는 절제되어 있으며 *Mansfield Park*의 삶에 비해 세련미는 없지만 진실하다는 덕성을 공유하는 인물들이다. 이는 작품에서 그려지는 Portsmouth라는 장소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나름의 태도를 갖는 곳이라는 점을 말해 준다. 따라서 Edmund가 Fanny를 아내로 맞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갈등의 해결은 *Mansfield Park*의 자

기 혁신이 순수하게 내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Portsmouth라는 제 삼의 가치와의 결합을 통해서 가능했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Mansfield Park가 온전한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Fanny와 같이 외부적인 인물을 필요로 했다는 점은 이 작품이 신세대에 대한 전통의 일방적 승리라는 구도로는 제대로 읽을 수 없음을 말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전통의 자기 회복이라는 것이 내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들게 한다.

지리적 모형으로 볼 때 생기는 하나의 문제는 작가가 Fanny를 Portsmouth라는 지형의 독특한 삶의 방식과 연결짓기를 거부할 뿐 아니라 Portsmouth에다가 London이나 Mansfield Park와 같은 분명한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Fanny가 귀향한 후에 Portsmouth에 대해 느끼는 인상을 보자.

Fanny was almost stunned. The smallness of the house, and thinness of the walls, brought every thing so close to her, that, added to the fatigue of her journey, and all her recent agitation, she hardly knew how to bear it. ... She was at home, But alas! it was not such a home, she had not such a welcome, as — she checked herself; she was unreasonable. What right had she to be of importance to her family? (MP, 375)

출신은 Portsmouth이면서 심리적으로는 Mansfield Park에 더 적응하게 된 Fanny의 상황은 그녀가 양쪽의 중간쯤에 어중간하게 있음을 의미한다. 그녀가 보여주는 덕성이 시종일관 어떤 중대한 변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결국 그녀가 서 있는 이 지점은 Portsmouth도 아니고 Mansfield Park도 아닌 곳이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Fanny는 이 작품에서

가장 완벽한 가치를 가진 인물로 제시되기는 하지만 그녀의 덕성은 어떤 구체적인 지형과 연관이 되지 못하고 다시 인물의 개인적인 자질에 기인한 것으로 되고 만다. 이미 *Northanger Abbey*에서 우리가 Henry Tilney에게서 느낀 불만이 여기에도 여전히 남는 것이다.

그러나 Fanny가 구체적인 지형과 연결되지 못한다는 점은 *Northanger Abbey*의 경우와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Fanny의 공간적 불명확성은 Portsmouth와 Mansfield Park의 생활규범의 가치가 섞임으로써 생긴 결과라는 점에서 *Northanger Abbey*에 명확한 소속을 두되 덕성은 개인적인 것으로 제시되는 Henry Tilney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Fanny의 가치는 현실적인 힘들과 갈등하면서 지켜 낸 덕성이라는 점에서 Morland 부부가 보여주는 목가적인 Whiltshire의 가치와도 다르다. Fanny의 덕성은 *Northanger Abbey*에 나오는 덕성들처럼 추상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현실의 어떤 특정한 세력의 한 편을 대변하는 가치도 아니기 때문에 그 지리적 귀속점을 찾기가 어렵다. 작가가 Fanny를 완전한 Portsmouth의 인물로도 설명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Mansfield Park식 가치의 대표자로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Fanny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인간적 덕성을 온전하게 담아 낼 지형이 현실에는 없기 때문이다. 독자가 보기에도 다른 인물들보다 훨씬 매력이 없게 그려진 Fanny의 인물 형상화에는, 현실에는 없는 어떤 목가적 공간에다 Fanny를 귀속시키지도 못하며 그렇다고 해서 Fanny를 담아 낼 현실적 가치 공간을 찾을 수도 없는 작가의 고민이 숨어 있다. *Northanger Abbey*에서 작가는 Whiltshire라는 지형을 손쉽게 그릴 수 있었으나, 이제 사회 내부에 현존하는 가치들로 눈을 돌린 *Mansfield Park*의 작가는 그런 쉬운 해답을 던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만족할

만한 지형을 사회 내부에서 찾아내지도 못한다. Austen의 주인공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덕성을 갖추었으면서도 가장 매력이 떨어지는 Fanny라는 인물의 형상화 뒤에는 여주인공을 매력적이고 생기있는 인물로 만들 현실공간이 부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러한 인물을 목가적 공간에다 담아 내기도 거부하는 작가의 갈등이 숨어있는 것이다.

*Mansfield Park*에서 작가가 사회 내부에서 대안적인 가치를 모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거로 삼을 마땅한 지형을 찾지 못했다면, *Persuasion*에서 작가는 Lyme이라는 지형을 통해 그 희망의 가닥을 찾는다. *Persuasion*에서 보이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해군들을 통해서 낭만주의적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묘사된다는 점이다. 이는 앞장에서 인용한 *Portsmouth*의 묘사와 이 작품에서 그려지는 Lyme의 묘사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On quitting the Cobb, they all went indoors with their new friends, and found rooms so small as none but those who invite from the heart could think capable of accommodating so many. Anne had a moment's astonishment on the subject herself; but it was soon lost in the pleasanter feelings which sprang from the sight of all the ingenious contrivances and nice arrangements of Captain Harville, to turn the actual space to the best possible account, to supply the deficiencies of lodging-house furniture, and defend the windows and doors against the winter storms to be expected. (PS, 119-20)

Lyme에서 묘사되는 해군들의 생활 모습이 비좁고 정신 사납게 그려지는 *Portsmouth*와 대조되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 *Persuasion*의 작가는 그동안 긍정적인 가치를 두기 주저했던 해군들의 삶의 양식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두드러진

것은 *Mansfield Park*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된 해군의 삶의 양식(Portsmouth), 혹은 유동성에 기초한 낭만적 삶의 양식(London)이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서 Lyme이 대표하는 해군들의 삶의 양식이라는 하나의 공간에 응집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바다와 해군이 보여주는 유동성과 자유분방함이라는 낭만적 가치는 명분만이 남은 육지의 삶의 양식에 대해 우월한 가치로 제시되어 있다. 그들은 London식 삶이 보여주는 기만적인 측면 대신에 “진솔함”(heartiness)을 갖고 있으며, 그들이 보여주는 절제된 공간은 Kellynch-hall이나 *Mansfield Park*의 형식적인 규율에 비해 훨씬 매력적이다. Captain Harville이 “꾸밈없고 따뜻하며, 온화한 진짜배기 신사(a perfect gentleman, unaffected, warm and obliging, 119)”이며 그의 부인도 “마찬가지로 심성 고운(the same good feelings, 119)” 인물이라는 표현은, 그들의 삶이 갖는 자유로운 격식이 인간적 덕성으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사실 *Northanger Abbey*의 Whiltshire에도 ‘온유한 성품과 견고한 원칙’이라는 측면에서는 Lyme과 같은 덕성이 있는데, Lyme의 경우에는 Whiltshire가 보여주는 무력함이나 사회와의 단절을 극복한다는 점에서 현실에 더 밀착된 작가의식을 보여 주는 공간이다.

Lyme의 생활방식에 대비됨으로써 작가의 시선이 더욱 비관적으로 기우는 것이 바로 Kellynch-hall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다. *Mansfield Park*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가치관의 틀 속에서 그것을 정화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되돌리려는 작가의 노력을 읽을 수 있었다. 또한 그것이 작품에서 행복한 결말의 형태를 취하고는 있으나, Fanny라는 외부적 인물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었다는 데서도 나타나듯 작가가 전통적 삶의 양식의 자기회복력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다. 그러한 우려는 이제 *Persuasion*에서는 Kellynch-hall의 Sir Walter라는 속물적인

인물의 형상화에 의해 명확해진다. 그는 경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능력은 없으면서 밤낮으로 족보나 뒤져봄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려는 불쌍한 인간이다.

Sir Walter Elliot, of Kellynch-hall, in Somersetshire, was a man who, for his own amusement, never took up any book but the Baronetage; there he found occupation for an idle hour, and consolation in a distressed one; there his faculties were roused into admiration and respect, by contemplating the limited remnant of earliest patents ... this was the page at which the favourite volume was always opened:

'ELLIOT OF KELLYNCH-HALL' (PS, 35)

여기서 Sir Walter가 자신의 이름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반성적이 라기보다는 다분히 나르시스적인 것이다. 그것은 현실에 대해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며 다만 준남작 명부에 올려진 자신의 이름에서 위안만 얻는 행위에 불과하다. *Mansfield Park*에서는 전통적 삶의 양식이 나름의 권위와 규범을 갖기 때문에 회복의 가능성을 다소 갖고 있었다면 *Persuasion*에 등장하는 Kellynch-hall은 그러한 긍정적인 미덕조차도 책 속의 박제된 과거로 남아 있는 곳이다. Sir Walter는 경제적으로 쪼달리자 경비를 절감하자는 Anne의 요청은 묵살하고 집을 임대함으로써 상황을 타개해보려 하는데, 이러한 점은 그가 현실적으로 무능력할 뿐 아니라 준남작 명부를 열심히 들여다 보는 만큼 그에 걸맞는 책임의식도 못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절망적인 상태로 파산했음에도 그것을 나르시스적인 행동을 통해 보상하려는 Sir Walter의 모습은 작가가 더이상의 희망을 구질서에서 찾지 못하게 되었음을 보

여준다. 작가는 Croft 제독이 Kellynch-hall을 임대 받으면서 그의 커다란 거울을 치우는 행위를 통해 그와 Sir Walter를 대비시키는데, 과연 Kellynch-hall은 진짜 주인이 나가고 임대인인 Croft 제독에 의해 꾸려질 때 더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게 된다. Kellynch-hall을 임대하는 행위는 Sir Walter와 같은 토지귀족이 사회의 도덕적 중심이 되는 역할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이 대변하는 가치도 이제는 Bath라는 곳에 부유하는 무수한 가치들의 하나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전통적 삶에 대한 작가의 시선이 앞선 작품들에 비해 현저하게 비판적으로 기울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전통적인 삶과 새로운 삶의 양식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를 동반한다는 것이다. 이 작품에 나타나는 Musgrove 가족의 Uppercross는 앞선 작품들에서는 대립되는 것으로만 그려졌던 두 개의 삶의 양식이 어우러지는 곳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여기에는 구세대와 신세대의 생활방식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로운 삶을 형성한다. 이 집을 그리는 작가의 태도는 다분히 호의적이고, 더구나 Kellynch-hall에 비교하면 그 장점이 더욱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외출준비를 하던 이 집안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Sir Walter와 Elizabeth의 “차가운 품위(the heartless elegance, 230)” 앞에서 얼어붙는 장면은 이 집의 분위기가 Kellynch-hall보다는 월등한 미덕을 가진 것임을 드러낸다. 따라서 Uppercross의 삶의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Mansfield Park에서 던진 질문, 즉 전통적 가치가 새로운 가치를 이해하고 현재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정작 작가는 이 집안을 묘사하면서 미묘한 단서를 달아 놓음으로써 그러한 해결의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The Musgroves, like their house, were in a state of alteration, perhaps of improvement. The father and mother were in the old English style and the young people in the new. Mr and Mrs Musgrove were a very good sort of people; friendly and hospitable, not much educated, and not at all elegant. Their children had more modern minds and manners. ... Anne always contemplated them as some of the happiest creatures of her acquaintance; but still ... she would not have given up her own more elegant and cultivated mind for all their enjoyments. (PS, 67)

작가는 여기서 “변화의 상태”라는 표현에다 “나은건지도 모를 상태”라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완전히 나아졌다고 판단할 수 없게 만들며, 곧 이어 Anne이 그들의 즐겁고 유쾌한 삶의 방식을 자신의 “우아하고 교양있는 정신”과 바꾸지 않겠다고 마음먹는다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Uppercross에 대한 독자의 낙관적인 희망을 방해한다.²¹⁾ 분명히 이들의 삶의 모습은 긍정적인 듯한데 작가는 명확하게 긍정하지는 않음으로써 빼딱한 시선을 던진다. 이러한 모습은 전통적 삶과 새로운 삶의 공존 자체에 대해서도 작가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쩌면 작가는 속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김에 명예도 쟁겨 보려고 Anne에게 접근하는 Mr. Elliot의 모습이 바로 두 개의 삶이 엮이는 실상이라고 보고

21) 이 부분에 대해 Tanner는 작가의 아이러니가 있기는 하지만 심각하거나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 글의 입장과는 달리 Austen이 Uppercross를 전적으로 긍정한다고 본다. 이 부분의 아이러니의 성격은 보기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그의 입장에서 보면 Mary와 Charles의 결혼생활이 그리 바람직하게 그려지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기 힘들며, 또 Tanner 자신도 몇 문단 전너 뛰어서는 Uppercross가 해군의 일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지하다는 점이 유감스럽다고 말함으로써 Uppercross가 해군공동체의 수준에는 못미침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Tanner, 같은 책, 225-9면 참조.

있는 듯하다.

이처럼 전통적 삶의 양식이 구제불능이라는 절망과 그것이 새로운 가치와의 만남을 통해 더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도 없다는 불안이 이 작품의 기조를 이룬다면 그럴수록 더더욱 해군의 삶에 거는 작가의 기대는 절실히 보인다. 그러나 작가의 기대가 클수록 해군의 모습은 이상화되며 그들의 삶의 긍정적 덕성은 현실감이 떨어진다. 가령 당시 나폴레옹 전쟁에서의 해군의 활약상이나 Austen의 오빠들이 심어주었을 해군의 그러한 모습이 개연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독자는 그들이 그것을 획득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는 없으므로 ‘그저 좋은 것이려니’ 하고 지켜보게 될 뿐이다. 우리가 Wentworth에게서 보는 덕성은 *Mansfield Park*의 Edmund처럼 우여곡절의 과정을 통해 얻어나간 것이 아니라 *Northanger Abbey*의 Henry Tilney처럼 그냥 주어진 것이라는 느낌을 받게된다. Henry Tilney가 인간적으로 타락한 아버지 밑에서 순전히 여행히도 덕성을 채득했듯이 *Persuasion*의 해군들은 모든 것이 썩어 있는 사회에 우연히도 인간적인 미덕과 ‘완벽한 신사다움’을 구현한 예외적 집단이다.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인 하지만 아버지의 규범과 London의 자유분방함이라는 두 개의 문화적 충격 사이에서 고민하며 자신의 자리를 찾는 Edmund의 절실함을 주지는 않는다. 따지고 보면 Anne과의 결합에서 Wentworth가 겪는 갈등이란 Anne에 대한 오해를 푸는 과정이지 그의 삶이 도전받고 재평가되는 성격의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의 결합은 Anne으로서는 “혁명적인 선택”²²⁾을 요구하는 어려운 것 있지만 독자에게는 Wentworth라는 이상적인 배우자가 있는 이상 ‘당연히’ 해야 할 선택으로 비치게 된다. 어느날 갑자기 자수성

22) Leavis, 같은 책, 54면.

가하여 나타난 Wentworth, 게다가 그가 다른 경쟁자인 Mr. Elliot 와는 달리 “풍부한 지성과 용기에 재능을 겸비한 아주 훌륭한 젊은이 (a remarkably fine young man, with a great deal of intelligence, spirit, and brilliancy, 55)”라면 누구라도 주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군의 삶에 대한 작가의 기대가 상승할수록 그것의 현실감이 떨어질 우려는 결말부에 드러난 작가의 태도에서도 확인된다. 작가는 해군의 삶에 거는 자신의 기대가 전통적 삶의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한다. Anne과 Wentworth의 결합은 8년의 시간을 두고 어렵게 이루어진 결합이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에 못지 않게 앞으로도 힘든 과제들을 안고 있다. Anne이 선택한 해군과의 결합은 전통적인 삶의 양식에 대한 작가의 미련이 완전히 버려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지만, 작품의 결말부는 Anne과 Wentworth의 그러한 결합이 얼마나 불안한 미래에 내맡겨져 있는지도 보여준다.

His profession was all that could ever make her friends wish that tenderness less; the dread of a future war all that could dim her sunshine. She gloried in being a sailor's wife, but she must pay the tax of quick alarm for belonging to that profession which is, if possible, more distinguished in its domestic virtues than in its national importance. (PS, 244-5)

해군의 삶이 갖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지는 근본적인 유동성은 그들이 보여주는 삶을 Kellynch-hall의 세계에 뿌리박을 수 없게 만든다. Anne이 선택한 해군과의 값진 선택도 결국 Mr. Elliot와 Mrs. Clay같은 부류의 인간에게 Kellynch-hall을 넘겨주고 떠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Kellynch-hall의 회복이

아니라 *Kellynch-hall*을 떠남으로써 얻어지는 행복이다. *Kellynch-hall*에서 홀륭하게 주인 역할을 수행하는 *Admiral Croft*도 결국은 임대인일 뿐 그곳을 떠나야 한다. 이처럼 *Kellynch-hall*의 주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그 곳을 떠나고 자격이 없는 인물들이 그곳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미래의 전망은 앞서 *Northanger Abbey*나 *Mansfield Park*에서 보여준 전통적 삶의 가치에 대한 일말의 신뢰마저 이제는 완전히 없어졌음을 말한다. 또한 그것은 현존하는 구질서와 새 질서의 어느 곳에서도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작가의 절망의 표현이며, 그가 해군의 공동체에서 유일한 희망의 공간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희망의 투사 이상이 되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V

인간의 삶을 묶어 주던 전통적인 규범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새로 등장하는 삶의 양식이 더 비참한 돈의 논리로 인간을 오도할 때, 개인은 과연 어떠한 공간에서 온전한 삶을 꿈꿀 수 있는가? 그것은 양자의 한 쪽에 눈을 감아 벼름으로써 가능할 수도 있고 혹은 나름의 이상적인 사회상을 그려봄으로써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팔호 밖으로 묶어내는 속 편한 방식이 진정한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때, 개인이 온전한 삶을 꿈꾸려면 그는 그가 부정하고 싶은 현실을 어떤 식으로든 끌어 안아야 하는 무거운 짐을 져야 한다. 더구나 개인을 규정하는 현실이 온전한 전체에 대한 감각을 박탈하는 억압적인 것일수록 그의 노력은 더욱 힘겨워진다. 그는 조각난 현실의 과편들을 주워 모아 그로부터 다시 전체를 그려야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 쪽 눈으로는 새로 나타나는 가치를 똑바로 응시

하면서 다른 눈으로는 전통적인 삶의 근거들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가야 하는 힘든 과정을 동반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 과거를 이상화함으로써 현재의 상황을 자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다가오는 미래를 이상화함으로써 그 미래의 부정성에 눈감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이 이상화한 과거가 정말로 존재한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 어느덧 그는 복고주의자의 향수병에 걸리게 되며 자신이 이상화한 미래가 희망의 투사물이라는 것을 잊는 순간 그는 시대의 흐름에 맹목적으로 자신을 떠맡기게 된다.

Austen이 세 편의 작품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역사적 흐름의 가운데에 놓인 개인의 고민이다. Austen은 작은 마을의 차 마시는 모임이나 소풍에서, 혹은 어쩌다 찾아드는 London 사람들의 옷차림과 말씨에서 토지에 기반한 전 근대적 삶의 양식이 새로운 자본주의의 물결에 휩쓸려 드는 모습을 감지한다. 그의 고민은 그 어느 쪽도 인간적 삶을 온전히 담아낼 가치체계가 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그는 더이상 유효성을 갖지 못한 채 타락한 전통과 맹목적인 돈의 논리로 부유하는 젊은 세대를 대조하여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최상의 삶을 모색한다. 때로 *Northanger Abbey*의 Whiltshire처럼 그의 시선은 과거의 삶에 대한 목가적 공간을 꿈꾸기도 하며 *Persuasion*의 Lyme처럼 새로 나타나는 가치를 희망의 공간 속에 넣어 보기도 한다. 이것은 그가 파악하는 전통적 삶에 대한 기대와 절망의 진폭과 비례하여 작가의 공감의 방향이 바뀌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 기대와 절망의 진폭이 긴장된 균형에 이르는 순간에는 *Mansfield Park*와 같은 수작을 낳기도 한다. Fanny와 Edmund의 결합이 주는 감동은 희망없는 전 근대적 삶과 비인간적인 자본주의적 삶의 틈바구니에서 그들이 온전한 개인으로 맺어지기까지의 힘겨운 과정에서 나온다. 그들은 두 개의 삶이 갖는 모순과 갈등을 정면으로 겪으

며 맷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Catherine과 Henry, 혹은 Anne과 Wentworth의 결합보다 더 깊이 있는 감동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이 세 작품은 그 우열의 정도에 상관없이 자기 시대를 역사의 흐름 안에서 파악하는 대가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것은 그저 사실적으로 시대를 담아내는 ‘사실주의자’나, 문제투성이의 현실을 예술적 가상으로 덮어버리는 몽상가의 필력에서는 나올 수 없는 작품들이다. 이 세 작품에서 역사를 대면하는 작가의식이 겪는 굴곡은 그의 짧은 문학시기가 커다란 변화를 동반함을 보여주며, 따라서 우리의 정형화된 Austen 상(像)이 수정될 것을 요구한다. Austen의 세계는 늘 불안정한 모색의 길에 있으며 거기서 벗어나 안주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어떠한 공간을 이상적으로 꿈꾸든 간에 그 공간의 유효성을 의심하고 검토하여 다른 모색의 출구를 찾아 나섬으로써 독자에게 도전한다. Q.D. Leavis가 지적하듯 “그가 검토하는 도덕적 가치는 이론적이거나 관습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검토로부터 나오는 것”²³⁾이다. 그에게서 역사는 개인의 삶을 압도하는 거대한 사건들이 아니라 개인이 일상적인 삶에서 마주치는 도덕적 가치의 문제로 다가온다. 인간의 일상을 구성하는 모임이나 대화, 혹은 남녀가 사랑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범속한 삶의 영역에서 Austen은 거기에 삼투하는 역사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Austen의 인물들이 그 시대의 역사적 삶을 구현하는 개인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들이 역사에 의해 ‘규정된’ 인물들이라고 말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자기 시대의 역사가 강제하는 가치규범들을 의심하고 저항하여 더 인간적인 삶의 존재 근거를 찾는다. 그들이 소망하는 온전한 삶의 근거가 명확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때로는 불안정한 타협에 머무

23) Q.D. Leavis, 같은 책, 29면.

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모색의 과정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값진 즐거움을 선사한다. 우리는 그들의 꿈에 공감하면서 그 꿈에 비추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삶을 반추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Austen의 재미’는 ‘Austen의 역사’와 서로 떼어 놓을 수 없고, ‘Austen의 역사’는 또 우리의 역사적 삶에 간섭한다.